

유달산의 민속



1994년 제22회 남도문화제 출연모습.

1 다순구미 산제

현재 유달산의 온금동(溫錦洞) 일대에는 다순구미 산제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다순구미’란 따뜻한 구역이라는 뜻의 순수한 우리말로써 동이름의 유래가 되기도 하였는데, 유달산 산신을 제의 대상으로 하는 이 산제는 70년대 말경에 중단되었으나 1994년 이르러 목포문화원의 주관하에 재현되었다.

산제를 모시는 곳은 마을뒤 산제당이였으며, 그 곳에는 산신의 화상이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 산제에 필요한 제비(祭費)는 집집마다 얼마씩 내는 호구세(戶口錢)로 충당했다. 그 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성의껏 낼

다순구미산제



수 있는 만큼 냈으며, 어떤 사람은 쌀로 내기도 했다고 한다.

산제를 모시는 사람을 제주라 하며, 마을 사람 중에서 연세가 지긋하고 깨끗하면서 정성이 많은 사람이 선정되었다. 제주의 선정은 마을 유지들이 했는데, 매년 같은 사람이 도맡아 지낼 때가 많았다. 산제를 모시는 시간은 정월 초이렛날 밤이었다. 시간이 되면 제주가 산제당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는데, 유교식 절차에 따라 진설-헌작-독축-재배 순으로 제를 진행하였다. 제사를 모신 다음 날에 제주집에서 음복이 있었다. 마을의 유지나 주변 사람들 몇이 이 음복에 참석했다고 한다.

산제후 갯제는 지내지 않았으며 매구나 줄다리기 같은 행사나 놀이도 없었다.

다만 정월 보름 무렵 마당뽕이를 하게 되면, 먼저 산제당에 가서 매구를 친 후 샘굿을 치고 걸궁을 했다고 한다.

주민들에 의하면 산제당은 70년대 말경에 당시 온금동 동장에 의해서 헐어졌다고 한다. 전해오는 주민들의 이야기로 산제를 안 지낸 후 마을 사람들 중에 화를 입은 사람이 많다고 하고, 산제당 파괴에 대한 이야기와 70년대말 산제당이 파괴되기 3일 전쯤 산신이 제주의 꿈속에서 나타나서 제주도로 가겠다고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산제당은 처음에는 한 칸짜리 기와지붕이었다가 기와가 상하니까 기와를 걷어내고 슬라브 지붕으로 바꿨다고 한다. 온금동 노인들 중에도 산신의 그림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산제를 지낼 때에만 당집 문을 열었다. 그때는 제주만이 제사를 지내므로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고, 또 무섭다고 하여 누가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산제당을 무섭고 엄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산제당이 없어진 지금도 그곳에 대한 외경심이 남아 있다. 산제당이 철거된 때를 전후하여 산제가 중단되자 마을에 굶은 일이 잇따라 일어나게 되었다고 주민들은 회상하고 있다.



산제당터 유물



산제당터 축대와 비석들

젊은이가 산제당터에 가서 자살을 한 일, 남녀가 마을 뒷산에서 자살 한 일, 스물 두세 살 먹은 청년이 자살을 한 일 등과 같이 청년들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또 어장도 잘 안되어 배를 가진 선주들이 온금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이런 흉사들을 온금동 주민들은 산제당의 파괴와 산제의 중단에서 그 원인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산제를 다시 지내자는 의견이 나와 1994년 음력 9월 9일 “산신맞이굿”을 하여 제주로 가버린 산신을 맞아오게 되었다. 마을 유지 다섯 사람을 제주로 선정하여 무당을 부르고, 서산초등학교 농악반이 풍물을 치면서 굿을 진행하였다. 바닷가에서 산신을 맞아 산신으로 맞은 화상을 산제당터로 모시고 와서 그곳에서 산제를 지내는 순서였다.

이 “산신맞이굿”은 1994년 11월 나주에서 개최된 “제22회 남도문화제”에 “다순구미제”라는 이름으로 출연하기도 하였다.

2 유달산 배치기

이 내용은 「스포츠 레저」 1987년 4월호에 실린 글을 소개하는 것임.

새벽 4시 반, 어둠이 짙게 깔리 해발 228m 유달산을 오르는 계단은 새벽 등산객들로 줄을 이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손에 대형타월을 들거나 목에 두르고 경사가 심한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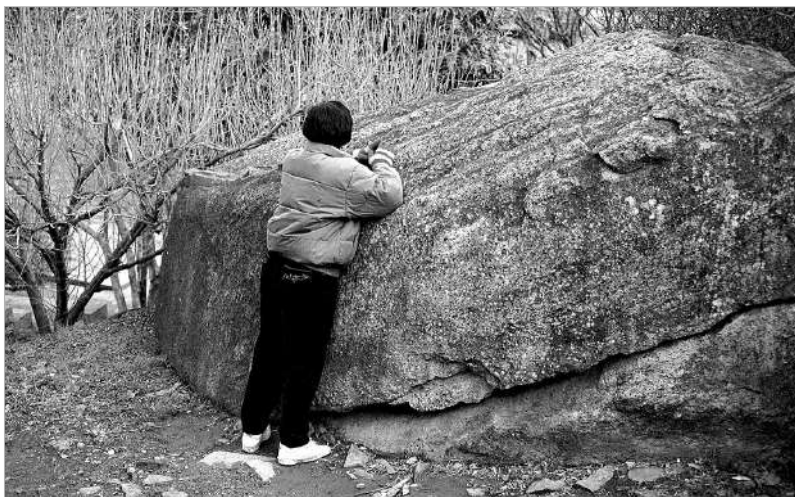
이많은 인파가 작게만 보이는 유달산 어디로 가는지 고개가 가웃거려졌다.

정상인 민바위는 설 곳이 없겠구나고 생각하며 배치기 현장을 보려 행렬속에 몸을 숨겼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짝을 짓고는 계단을 중심으로 좌우 숲속으로

말없이 증발을 하고 있었다. 경사가 심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저렇게 큰 수건이 필요한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다.

주빋주빋 둥글둥글 튀어나온 바위들 사이에 적은 공간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간단히 맨손체조로 몸을 풀더니 자기 배나 허리 부분이 쉽게 닿을 정도로 바위가 불룩 튀어나온 곳에 타월을 덮고는 배를 바위에 대고 전후좌우로 비비기 시작한다.

45도로 누운 바위든 50도 각도든 바위 배가 불룩 튀어나온 곳에 개구리처럼 납작하게 붙어 비비고 또 엉덩이를



유달산 배치기. 유달산의 바위는 독포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준다.

털석이며 배를 부딪치는데 못 볼 것을 본 양 옆에서 보는 사람의 얼굴이 붉어진다.

‘하나아, 두울, 세에엿’ 속으로 중얼거리며 세기를 약 2~3분, 갑자기 헉! 헉!하며 배치기를 2~3분, 아무리 봐도 점잖은 모양은 아닌데 본인들은 진지하다.

바위산인 유달산 자락 치고 치고 비비기 좋을 만큼 튀어나온 바위는 모조리 반질반질하다.

“오늘 아침에는 좀 늦었어요. 외지사람들에겐 날이 새

고 나면 이 행동을 좀 보기가 거북스러울 거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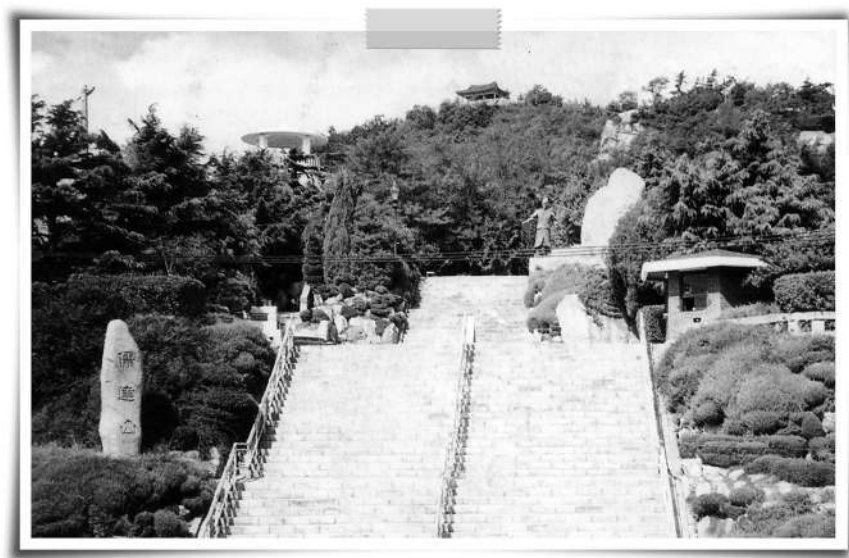
13년째 비가 오나 눈이오나 유달산 꼭대기 민바위 밑에서 배치기를 하는 임상운씨(林相云·63·목포시 측후동 1의 16)는 나이 50줄에 혈압이 1백 10에서 1백 80까지 오르던 고혈압, 게다가 속병이 있었으나 3년간 배치기를 하고부터 씻은 듯이 나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78kg의 몸이 62kg로 10년째 유지하고 있다. “새벽에 여기 나와 배치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 귀신 곡할 정도로 깨끗해지는데 산삼 녹용을 뭇 땀시 돈주고 먹지라.”

허리 병은 등쪽을 비비고 친다. 고혈압 두통은 칼등처럼 튀어나온 바위에 목뒤를 돌리며 비빈다. 신경통은 허벅다리 발꿈치를 정력부족 조루증은 하복부 중요부분을 하루 5백회 정도 비비면 새 힘이 솟아난다. 똥보의 보기 싫게 튀어나온 배는 편편한 바위에 얹드려 비비면 날씬하게 균형 잡힌 몸이 된다.

“유달산 바위의 성분은 잘 알 수 없으나 특수한 자력을 발산하는 바위임에 틀림없지요.” 임씨의 말이 빈말이 아닌지 목포사람은 물론 객지의 환자까지 한달이고 두달이나 여관에 장기 투숙을 하며 배치기를 하고 씻은 듯 몸이 나아 돌아간다고 한다.

“유 달산 배치기의 효 과는 과학적으로 증명
되지 못 하지만 목 포 사람들은 건강유 지에
탁월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유달산의 전설



1

노적봉 전설

(1972년도 3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 내용)

■ 노적봉과 영산강

지금부터 약 4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나라에 갑자기 왜군이 쳐들어와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때, 우리 나라에는 이순신 장군이란 이름난 해군 대장이 계셨습니다. 왜군은 배를 많이 거느리고 우리 해군을 무찌르려고 하였지만, 번번이 이순신 장군에게 패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운 자취는 우리 나라 남해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싸운 이야기에는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노적봉과 영산강에서도 재미있게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 나라의 남쪽 끝에는 목포 항구가 있습니다.

이 목포 시가를 품안에 안고 있는 유달산은, 작은 금강산이라고 할만큼 이상한 바위가 많고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유달산 여러 봉우리 가운데서도 가장 이름난 봉우리가 노적봉입니다.

노적봉을 멀리서 바라보면, 그 모양이 한송이 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곡식의 낱가리를 쌓아올린 것과도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낱가리 모양을 이용해서 적을 재미있게 물리쳤습니다.

왜병들이 탄 많은 왜선은 목포 남쪽에 있는 고금도 바다에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 우리 이순신 장군도, 기회를 보아 바다로 나가 적들과 큰 싸움을 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적군은 오랫동안 바다에다 진을 치고 있었고, 우리 해군도 배를 띄우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으므로, 양쪽이 다 군량이 넉넉치 못하여 더 오래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 지혜 많은 우리 이순신 장군은, 이 노적봉을 곡식 낱가리처럼 꾸미라고 하였습니다. 그 둘레를 짚과 섬으로 둘러싸게 하여, 마치 노적처럼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왜군들이 목포 바다에 이르러 이 노적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더미처럼 큰 노적이 있으므로 깜짝 놀라서, ‘적이 군량을 산같이 쌓아 두었으니, 쉽게 들어가 치지 못하겠다.’ 하고 미리 겁을 집어먹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이순신 장군은 화살 한 개, 배 한 척 잃지 않고 많은 적병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노적봉이 묘하게 생긴 것을 잘 이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뒤로부터 이 봉우리를 노적봉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목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영산강이 있습니다. 전라도 너른 들을 살찌게 하는 이 영산강은, 나주 평야를 지나 목포 앞바다로 흘러듭니다.



유달산 꽃축제 때 재현 모습

이순신 장군은 또 군사를 시키어, 영산강 상류에서 횃가루를 강물에 풀게 하였습니다.

왜병들은 횃가루가 흘러서 바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군사들이 먹을 쌀을 씻는 뜨물이 저렇게 흘러내리니, 양식도 많겠지만 군사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하고 모조리 물러갔다 합니다.

말없이 솟은 노적봉, 굽이쳐 흐르는 영산강은, 용감하고 지혜 많은 이순신 장군을 도와 빛나는 승전을 하게 한 것입니다.

2 선인무수형국(仙人舞繡形局)

역학자들이 말하기를 유달산은 신선이 춤을 추는 듯한 산 모양이라고 한다. 현 목여중 뒷편 서산동쪽 언덕이 신선의 오른팔, 옛 기상대 부근이 왼팔, 목포진터는 북, 삼학도를 가야금으로 보고 신선이 거문고와 북을 치며 춤을 추고 있는 형상이라 한다.

3 영달산(靈達山)

유달산을 영달산(靈達山)이라고 하여 그에 따른 전설도 있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이 죽으면 영달산의 율동바위(律動, 일등바위)에서 영혼이 심판을 받은뒤, 일단 혼령이 이동바위(移動, 이등바위)로 옮겨져 대기하고 있다가 저승길에서 극락세계로 가는 영혼은 3마리의 학(삼학도를 나타냄)이나 고하도 용머리의 용에 실려 떠나고, 용궁으로 가는 영혼은 영달산에서 조금 거북섬(龜島: 목포와 압해도 사이에 있는 섬)에 가서, 거북이등에 실려 용궁으로 떠난다고 한다.

유일하게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유달산은 영혼이 거쳐가는 곳이라 하여 영달산이라 불렀으며, 일등바위는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하여 율동바위, 이등바위는 영혼이 이동

한다하여 이동바위라고도 불렀다는 이야기이다.

4 유달산호랑이

유달산에 호랑이가 살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호랑이가 유달산에 가끔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구전되어 오고 있다.

1899년 봄 유달산에 살고 있는 일인(日人) 후지모리 리베에, 야마모토 이와기찌, 마스마에 다메노스께 세 사람이 유달산으로 등산을 갔다가 일등바위 부근에 이르러 큰 바위에서 잠시 쉬려고 하자 그 곳에 있던 한국사람이 그 바위근처에는 가끔 호랑이가 나타나니 조심하라는 말을 했다. 이에 일본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 후로 유달산에서 호랑이가 포효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한다.

또한 1930년에 발간된 《목포부사》에는 “눈이 내린 뒤에는 유달산에서 내려온 호랑이 발자국이 인가(人家) 근처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달산에 호랑이가 살았었다는 구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5 신비의 샘 옥정(玉井)

〈달성사 옥정에는 몇가지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꽤 오래전 이야기로 당시 여름철만 되면 절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왔었다. 어느 관광객이 옥정이 좋은 샘이라는 것을 알았던지 옥정결에서 목욕을 하는 등의 추태를 부리자 가뭄에도 마르지 않던 샘이 말라 버렸다. 그 뒤 절에서 용왕제를 지내고 100일 기도를 올리자 마침내 다시 물이 나왔다.”

“경기도에 사는 정보살이라는 분이 해마다 옥정에서 물

을 길러 간다. 정보살에게는 항상 자식이 태어나도 3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게 2명의 자식을 잃었는데 하루는 꿈에 법당옆에 있는 샘의 물을 마시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법당 옆에 있는 우물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달성사 옥정을 찾게 되어 자식을 살렸다고 한다.”

6

삼학도(三鶴島)

삼학도에는 여러가지 전설이 있는데 맥락은 대부분 비슷하다. 이중 대표적인 전설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설1

역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고장 목포의 형세를 “선인무수”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선인이 춤추는 형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수 천년전 이 고장 유달산에는 간혹 선인들과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놀았다고 한다. 그 무렵 한 장수가 청운의 뜻을 안고 방방곳곳을 찾아 다니다 이 곳에 이르러 산세를 보고 감탄한 나머지 이곳 유달산에서 수련할것을 결심하고 매일 기도와 무술 연마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때 인근마을에는 식수를 쓰기위해 매일 같이 유달산에 오르던 세 처녀가 있었는데, 그 장수의 모습을 보고 각자 제 나름대로 가슴 속 깊이 꿈을 그려보다가 불타오르는 연정을 가눌 길이 없어 마침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한결같이 사랑을 고백하고 만다. 장수는 갑작스런 사태에 당황한 나머지 삼일간의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했다. 세 처녀는 쾌히 승락하고 약속한 날을 하루가 멀다하게 기다렸다.

드디어 약속한 그날이 왔다. 세 처녀는 설레이는 가슴을 억제하고 장수를 찾아갔다. 장수는 세 처녀를 한 자리에 불러 놓고 말하기를 ‘나는 아직 수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옛 삼학도 모습

삼 년후 수련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여러분을 불러 내 뜻을 밝히겠으니 그 때까지만 고생이 되더라도 멀리 떨어진 섬에 가서 가다려 주기 바라오.’하고 당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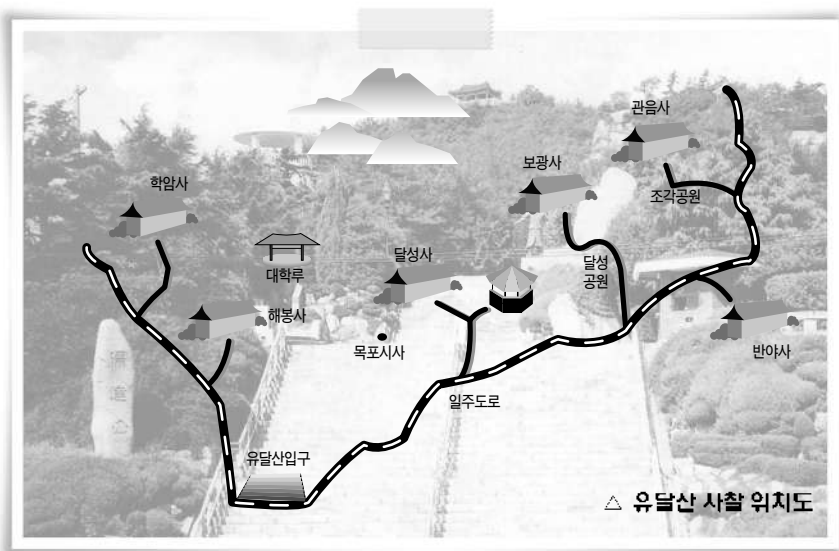
세 처녀는 쾌히 승락하고 집에 돌아가 떠날 채비를 한 다음 조그마한 돛단배를 빌려타고 떠날 무렵 산위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던 장수는 뒤늦게 세 처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고 떠나는 배를 향해 활을 당겼다. 그러나 그만 활이 배에 맞아 침몰하게 되는데, 순간 바다는 뒤집히고 칠흑같은 어두움 속에서 한참동안 뇌성이 일고 번개불이 번쩍이며 폭풍우가 휘몰아쳤다. 그러나 갑자기 잠자 듯이 고요해지면서 세 처녀의 뉘이 세 마리의 학으로 변하여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더니 장수를 원망하듯 구슬픈 노래를 부르며 허공을 훨훨 날으다가 사뿐히 바다 위에 내려 앉았다. 그러자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세 개의 섬이 바다 위에 갑자기 솟아 올랐다. 이 섬이 바로 오늘날 삼학도라고 한다.

■ 전설2

유달산에 한 장사가 도를 닦고 있었는데 산 아래 마을에 사는 세 처녀가 함께 이 장사를 사모하게 되었다. 세 처녀가 자신을 사모하고 있음을 알아버린 장사는 수도에 방해가 되므로 하루는 세 처녀를 불러 이르기를, “내 수도가 끝날 때까지 바다 건너 섬으로 건너가 살고 있으면 찾아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믿고 세 처녀는 배를 타고 섬을 향해 미끄러져 가고 있을때 아무래도 이 세 처녀들이 있는 한 수도가 제대로 되지 않겠다고 판단한 장사는 철궁을 들어 배를 향해 쏘았다. 그래서 배에 구멍이 뚫려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자 세 처녀는 학으로 변하여 솟아 오르다가 지금의 삼학도 자리에 내린뒤 세 개의 섬으로 변했다고 한다.

유달산의 사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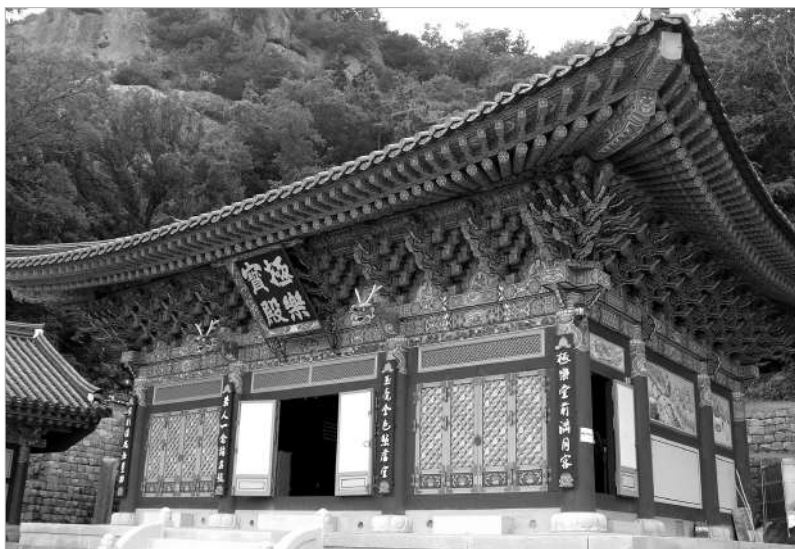


1 관음사(觀音寺)

죽교3동 189번지 산28(이등바위 밑 조각공원 내)에 위치.

관음사는 1855년 본래 산신당(山神堂)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그후 김파월(金把月) 주지에 의해 사찰(寺刹)의 면모를 갖추고 관음사로 칭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중수년 대는 밝혀지지 않는다. 다만 「木浦市史」에는 1930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확인할 수 없다. 이곳에는 이등바위에 있는 거북바위와 마주보고 있는 거북바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유달산의 혈(穴)이 모두 이 거북바위에 모여 있었다는 말도 전해진다. 현재는 공사로 인해 파괴되고 그 부분 흔적만 남아있다.





달성사(達聖寺)

2 달성사(達聖寺)

죽교동 317번지(연무정 옆)에 위치한 달성사는 해남 대흥사(大興寺)의 수말사(首末寺)로 양산 통도사 출신인 노대련선사(盧大蓮禪師)가 1915년 4월 8일 세웠다. 달성사는 건물 6동(大雄殿·寮舍體2·七星閣·冥府殿·鐘閣)으로 경치가 아름답고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절에는 신묘한 효과음을 내는 범종(梵鐘·중량 96kg·높이 73cm·폭 52cm)이 있는데 1915년 대흥사에서 노대련선사가 가져온 것으로 전해진다. 범종의 주조년대는 정조 10년(1786)이며 각명(刻名)을 보면 “乾隆五三丙午七月〇日 海南大屯寺挽日庵 中鍾一百斤”이라 했고, 반대편에는 “主上殿下 壽萬歲”라 각(刻)해져 있다.(大屯寺는 대흥寺의 옛이름이고 挽日庵은 대흥사에 딸린 암자이다) “주상전하 수만세”라 각해진 것은 정조대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뜻으로 이 범종을 백성들이 대흥사 만일암에 시

대웅전 안에 있는 범종





노대련선사 공적비



달성사 종각

주하였다고 한다. 범종을 만든 사람은 백흥적(白興積)·김중명(金重明)이라 되어 있고 용두(龍頭)에는 신룡비천상(神龍飛天像), 종신(鐘身)에는 4대보살, 용구(龍口)에는 여의주(如意珠)가 물려 있다. 현재는 대웅전 안에 보관하고 있다.

명부전(冥府殿)에는 1565년(명종20년)에 조성(造成)된 것으로 전하는 12지장보살(十二地藏菩薩,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229호)이 있는데 이는 나주군 다도면 운흥사에 있던 것을 운흥사가 화재를 당하자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또 대웅전(大雄殿)내에는 고려시대(高麗時代)의 것으로 추정되는 삼존불(三尊佛·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대세지보살)이 있는데 이는 완도 보길도에 소재한 절(達聖寺)에 있던 관세음보살과 바꿨다고 한다. 1678년에 조성된 것으로 유형문화재 228호이다. 절로 올라가는 계단 옆 달성사 창건주인 노대련선사의 공덕(功德)을 추모하기 위하여 1946년 10월 15일 세운 “創建主盧大蓮大禪師影功碑”가 있는데 비의 높이는 291cm, 너비 60cm이다. 이 비는 본디 대웅전 앞 공터에 세워졌는데, 후에 대웅전 앞 마당을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하면서 비석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비석의 위에 바로 기반을 쌓아 버려서 지금의 흉물스런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한편 달성사 아래에는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塔)이라 불리는 삼층석탑(三層



나무아미타불

石塔)이 있다. 구도(求道)를 목적으로 1921년에 세워졌으며 일명<미타탑>이라고도 불리운다. 탑의 측면에는 달성사를 지을 때 부지를 기부하고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전면과 후면에는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라 새겨져 있으며 규모는 높이 187cm · 너비 93cm이다.

3 반야사(般若寺)

명칭은 백양사포교당(白羊寺布教堂), 영명사(永明寺)라 했으며 위치는 당시 목포부 남교동 132번지에 창건됐다. 명칭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장성군대본산(長城郡大本山) 백양사(白羊寺)의 말사이며 1908년 10월 6일 영광불갑사(靈光佛甲寺)의 주지 송혜은(宋慧恩)이 개설한 곳이다.

건립당시 부지 216평, 당우(堂宇) 20평(당시의 시가 6,500원). 특기할 사항으로는 화엄경(華嚴經) 80권, 범종(梵鐘), 북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신도는 100명 정도였다. 당초에는 불갑사의 경영에 속해 있었으나 불갑사의 재정적 곤란을 통고받은 이후는 부득이 독자적인 유지 방법을 강구하고 일반신도로부터 매월 백미(白米) 다섯말(5斗) 정도의 성미(誠米)를 받고 또한 임시의 시주로 임원



반야사(般若寺)

두사람, 공양주 한사람, 그리고 봉사의 제비용(諸費用)에 충당하고 있었다. 그 후 대한불교 조계종(曹溪宗)에 속하게 되었으며 사호(寺號)를 반야사라 개칭하게 되었다.

4 보광사(普光寺)

유달산 동쪽 달성사(達聖寺)와 수도사(修道寺) 중간에 있는 보광사는 1929년 10월 30일 박운계(朴雲溪) 스님이 창건하였으며 장성 백양사(長城白羊寺)의 말사(末寺)이다. 대지 190평, 건평 29평으로 300여명의 신도가 있으며 주된 행사로는 연중 2회, 월 5회의 행사가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曹溪宗) 18호(1962년 10월 29일)로 등록되어 있으며, 역대 주지로는 1대 박운계, 2대 박만성(朴晩惺), 3대 김용구(金龍龜) 스님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륵전(彌勒殿)에 석조미륵상을 모시고 있다하여 일명 미륵사(彌勒寺)라고도 불리우며 석조미륵상 밑에는 산고(産苦)에 효험이 있다는 깃샘이 있다. 절 앞에는 1974년에 세운 칠보



탑(七寶塔)을 기념하기 위한 <普光寺七寶塔, 七星契員一同施主塔> 이 있다.

5 학암사(鶴庵寺)

1946년 진(陳)씨가 토굴(土窟)로 창건한 학암사는 1971년 문수암(文殊庵) 문연(文蓮) 스님이 대웅전(大雄殿)을 신축하면서 자리를 잡았다.

대한불교 법화종(法華宗) 72호(1963년 7월 1일)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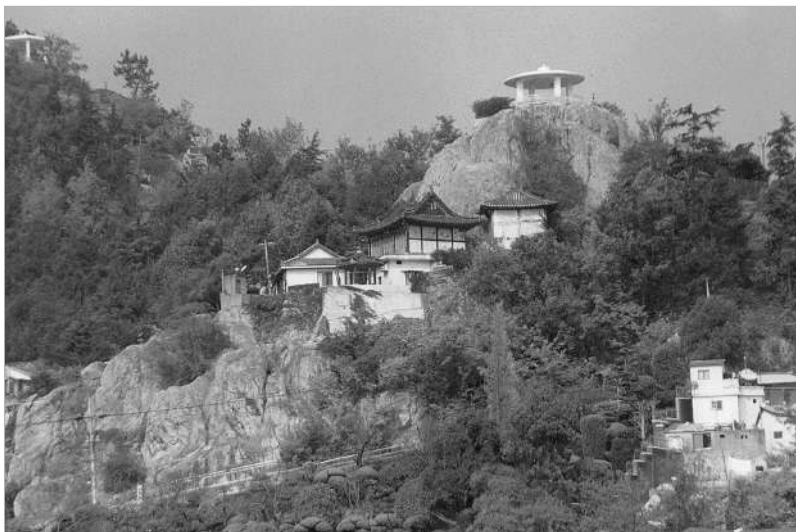
록되어 있으며 유달동 3번지에 위치한다. 대지 300평에 건평 35평, 건물 43평(대웅전·요사채·칠성각·종각)으로, 신도는 730명이며 신행단체로는 75명의 관음회가 있다. 연중행사로 4월 8일에 관음불사, 7월 7일에 칠성기도를 올리고 월례행사로는 7일에 기도법회가 있다.

사찰 입구에 <創建功德碑> (불기 2526년 辛酉建, 殊庵 文蓮 儒泉 徐鍾堅書) <故創設主陳氏法華行碑> (辛卯建), <官旭大和尚功德碑> 가 있다.

6 해봉사(海峯寺)

유달동 1번지(유달산 중봉 남쪽), 목포항을 바라보고 있는 해봉사는 1940년 3월20일 최학송(崔鶴松) 스님이 창건하였다.

최학송스님은 장성백양사(長城白羊寺)의 승려로 동안거(冬安居)에 정진하고 있던 중 하늘이 열리고 천지가 밝아지면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목포 유달산 중턱에 법당을 창건하고 포교하면 많은 불자가 운집하고 또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목포시민이 액운을 면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계시가 있어 즉시 백양사를 떠나 목포로 옮겨와 현재의 위치에 해봉사를 세웠다. 대한불교 법화종(法華宗) 71호(1963년 7월 1일)로 등록되었으며, 500여명의 신도와 금강회·불교청년회등 불교모임이 있고 회원수는 96명이다. 연중행사로 4월 8일 관등불사를 비롯하여 7월 15일 우란분재(盂蘭盆齋), 12월 8일 성도일(成道日)등이 있고 월례행사로는 3, 7, 24일에 각각 기도법회가 있다. 1984년(甲子)에 주조된 범종(梵鐘)이 있으며 대웅보전(大雄寶殿)에 삼위(位)의 불상을 모시고 있다.



유달산 명물

1 정 병 조

정병조는 유달산을 일본인들에게 팔아 먹어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목포에 일화를 남긴 인물이다. 목포에는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전해오고 있으며, 그에 대한 평가도 여러가지로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그가 유달산과 관련된 명물이자 목포의 기인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그가 죽고 난후 보도된 신문기사의 내용을 통해 소개를 대신한다.

“
“유달산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일본인에게 팔아먹은 정병조는 아직도 많은 목포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인물이다.”
”

木浦의 先達 鄭柄朝翁 별세

日人에 儒達山 팔아 育英사업에 32億 투척

자기 이름을 새긴 말목을 세워 木浦 儒達山の 나무, 바위, 흙 등을 따로따로 日本人에게 팔아먹었다는 신화같은 실화를 남겼던 木浦의 金先達 巨山 鄭병조옹이 93세를 일기로 17일 오후 10시 山亭동소재 자택에서 별세했다.

鄭옹은 75년전인 1895년 18세때 경남동래군에서 木浦에 단신으로와 日本人과 싸워가며 개항도상의 木浦에다 45만평의 간척지를 막아 거부가 되었다. 鄭옹은 항상 日本사람을 상대로 치부를 해와 일본인의 골치거리였다.

최고기관인 조선총독부에 금명함을 뿌리며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왜(倭)놈들의 식민지 정책에 말려들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보호해온 것. 한 해 동안 목포 토박이들은 유달산을 팔아먹었다 해서 鄭옹을 매국노 취급을 했으나 “왜놈에게 유달산을 팔아먹은게 뭐가 잘못이나? 유달산을 일본으로 떼어가느냐?”고 비난을 일축했다. 해방이되자 木浦의 교육사업을 위해 5만여평(西部國民校·東光中高校·一中·商高校·儒達中)을 각 학교부지로 기증했고 철도부지를 비롯, 15만평의 땅을 木浦시에 기증하고 25만평은 재단법인 國民대학에 기증, 지금도 국민대학의 이사가 되어 있다.

15만평에 달하는 부지에는 영세민 3천여 세대가 살고 있으나 지세마저 받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어 그 옛날 鄭옹에 대한 일시적인 오해는 고마움으로 鄭옹의 서거를 애통해 하고 있다.

그동안 기증한 재산만 해도 32억원이 넘는다. 鄭옹에게는 슬하에 장남 英昭씨와 차남 黃周군(18)이 있었는데 英昭씨는 6·25이후 5·10선거때 木浦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그 이듬해 47세때 사망했고 현재 금년에 木浦高等학교를 나온 黃周군과 미망인 梁空任여사(58)가 남아 있다. 아직 鄭옹의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장례식장에 모인 측근자들에 의하면 이제 별것 없을 거라며 결국 鄭옹은 남을 위해 일생을 바쳤고 공수래공수거의 조용한 일생을 마친셈이다.

(전일 70. 2. 22)



2 유달산 안내원 최귀순 할머니

유달산 유선각에 가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할머니 한 분을 언제나 만날 수 있다. 올해 77세가 되시는 최귀순 할머니(신안군 안좌출신)는 유달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자신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유달산의 민간안내원으로 친숙한 인물이 되어있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언제부터 안내일을 하시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소일거리 삼아 등산객들을 상대로 옷놀이 판을 놀렸었지요. 그러던 차에 유달산에 오는 외부사람들에게 제대로 안내를 해 줄 만한 안내원이나 책자가 없다는 생각에 내가 유달산에 다니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 했어요.

한해 두해 그러다 보니 저에게 안내를 받았던 분들이 고맙다고 집으로 편지를 가끔 보내와요. 그래서 이 일이 참 보람있고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해전 부터는 오직 안내만을 위하여 유달산에 오고 있지요.

자식들도 처음에는 제가 산에 다니는 것을 별로 안좋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좋게 생각해주고 있어요.

* 어떤 분들이 주로 안내를 받으나요?

주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인데, 특히 경상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하지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목포에 왔더니 이렇게 자기들에게 친절하게 해준다니 고마워합니다. 이런 것이 지역감정을 없애는 것 아니겠어요.

＊ 일본인들도 자주 안내해주신전데?

일제시대때 학교 다니면서 일본어를 배워서 지금도 곧잘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오면 제가 꼭 안내를 하지요. 유달산 뿐만아니라 향토문화관이나 목포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 특별히 보람을 느낀 적있시 있다면?

어느날인가 일본인 아가씨 한명이 혼자 이곳에 왔어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왔는데 친구들은 모두 서울로 먼저 가고 자기는 홍도를 가보고 싶어서 여기 남았다가 유달산에 구경왔다고 했지요. 그런데 다음날 날씨 때문에 홍도가 는 배가 출항을 하지 않자 당황한 아가씨가 하는 수 없이 다시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더니 ‘서울로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직접 데리고 역에 가서 국밥을 한 그릇 사먹이고, 밀감 이천원어치를 사준다음, 버스기사에 일본에서 온 분인데 길을 모르니 버스터미널 까지 잘 모셔다 달라고 부탁을 해서 태워 보낸 적이 있어요. 무척이나 고마워 하더라구요. 내가 여기를 지키는 보람을 느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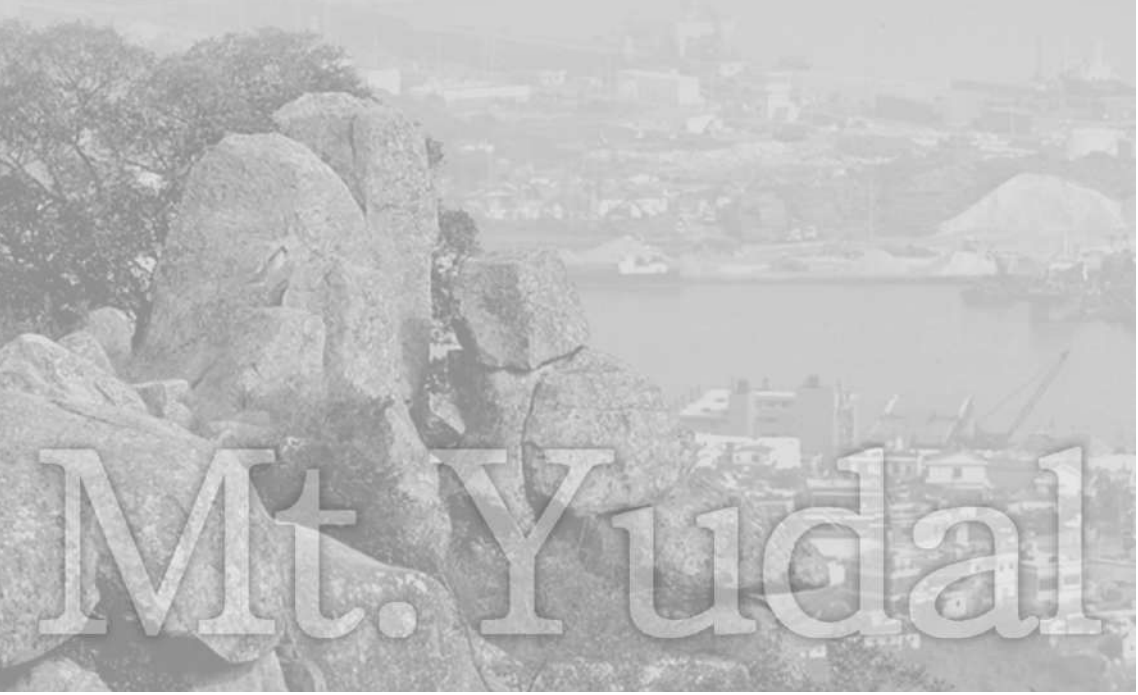
“

최귀순 할머니 외에도 슈달산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진 찍어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조창영 (76)씨를 찾아가면 슈달산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들을 수 있다.

“



유달산 쉼터



Mt. Yudal

유달산 쉼터



꽃나무와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국내 최초 야외조각 공원

1 유달산 조각공원

목포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유달산 기슭 이등봉 아래 13,000 평의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유달산 조각공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조성된 야외 공원으로 1982년 10월 문을 열었다. 당초 유달산 주변의 무허가주택이 도시미관을 해친다하여 유달산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 졌으나, 지금은 목포시민의 편안한 쉼터이자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처음에는 한국조각연구회 회원44명의 작품 104점이 유달산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전시되었고, 1994년 11월에 예술성이 높은 새로운 작품들로 교체되어 한국 조





전시작품중 하나



조각공원 내에 있는 보존 가옥.

각예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야외전시방법이 여러 가지 자연 형태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 목포의 자랑거리로 명성을 더해 가고 있다.

공원안에는 조각작품 외에 야외 음악당 · 분수 · 휴게소 등의 시설과 조각공원이 들어서기 전에 있었던 관음사(觀音寺)와 주택 1채를 보존가옥(保存家屋)으로 남겨두고 있다. 전시한 조각품 주변에는 희귀수목으로 조경되어있고,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

또한 이곳은 움직이지 않는 조형물의 생명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 위한 인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요금표>

	개 인	단 체(30명)
어 른	1,000원	800원
청 소 년 · 군 인	600원	400원
어 린 이	400원	200원

2 난 전시관



난 전시관 내부

유달산 주차장 우측편(달성공원 내)에 위치한 난공원은 1983년 5월에 개원하였으며 93년에는 현대식 난식물원을 신축하여 2,400평의 부지에 2동의 난실을 갖추고 있다.

난공원에는 우리나라 전국각지에서 자생하는 한국난 38종을 비롯하여 동양난 120종, 양난 94종 등 모두 240여종의 난이 저마다의 기품을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이 난공원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난의 배양과 재배에 성공하여 저렴한 가격에 육종 분양하고 있다.



주로 시비를 투입하거나 목포 난우회, 야생초 회원들의 기증품과 기술자문을 얻어 운영되고 있으며, 93년 10월에는 대엽 풍란 1000축을 당일 선착순으로 판매한 결과, 오후 3시에 바닥이나 멀리서 구입하러 온 사람들이 울상을 짓기도 하였다고 한다.

난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유달산 난 전시관

◆ 문의전화 :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 (061) 242 - 2344

3 문화의 집

1997년 12월 30일 옛 달성초등학교 1층 120평을 개조하여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문화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개관하였다.

문화의 집은 사전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창작실, 개인연습실, 문화사랑방과 상시 이용 가능한 문화관람실, A/V감상실, 비디오부스, CD부스, 인터넷부스, 정보자료실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자료실에는 CD 1,100여점, 도서 2,800여권, 비디오테이프 1,100여점 등 총 5,000여점이 비치되어 있고 문화관람실은 소규모공연, 미술품 기획



유달예술촌

전시장으로 쓰이며 우수 특선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문화창작실에는 공방, 꽃꽂이, 공예품 만들기등 취미·창작 활동 공간, 문화사랑방은 가족·동호인 단위의 좌담회 공간이 마련되어있다.

개인의 연습을 위한 개인연습실 2개소가 있고, 인터넷 부스(컴퓨터 4대)에서 문화예술정보와 각종 정보를 찾을 수 있다. CD부스(CDP 4대)에는 CD 헤드폰을 이용 개인별 음악감상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비디오부스(VTR 2대)는 2~4명의 비디오감상공간을 제공한다. A/V감상실은 가족이나 동호인 모임등 10명이내의 영화나 음악감상 모임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용료는 무료이고 평일에는 10:00부터 20:00까지, 주말에는 10:00부터 18:00 까지 운영되며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목포시 죽교동 300번지 유달예술촌내(243-1997)에 위치하고 있다.



대박산기슭으로새로이전한 연무정

4 연무정 옛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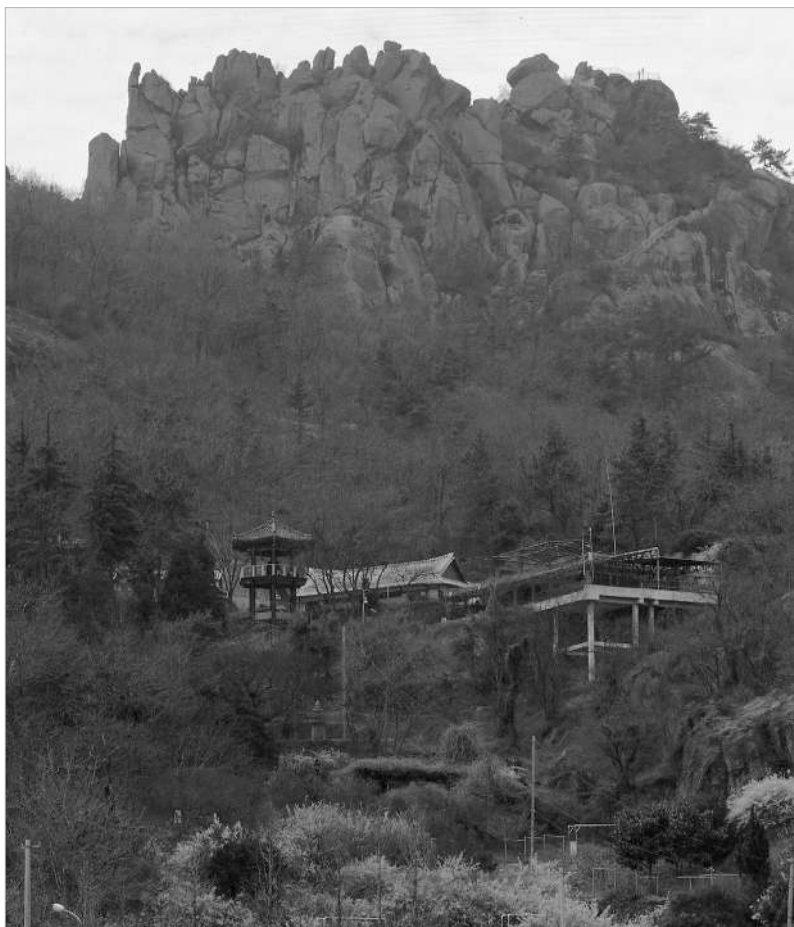
연무정은 궁술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는 곳으로 달성사 우측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2년 목포시 상동 산 34번지 대박산 기슭으로 이전했다.

목포에서는 오래전부터 궁도에 뜻을 둔 인사들이 지금의 북항 부근의 활터에서 궁술을 연마해 오고 있었는데, 1925년 5월에 초대(初代) 사두(射頭) 김명수(金明洙)가 당시(當時) 사원(射員)이었던 김인서(金仁瑞)·김성호(金聲浩)·차남진(車南鎭) 등과 합의하여 지방독지가 현기봉(玄基奉)으로부터 현 위치의 부지(목포시 죽교동 361-1) 2백여 평을 기증 받아 동년 6월부터 부지와 사대(射台)를 정비하여 연무정사(練武亭舍)를 건립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이 극심하여졌고, 그에 따라 연무정의 운영관리가 소홀해지면서 1944년 7월 중순 폭풍우로



연무정에 위치한 사두 공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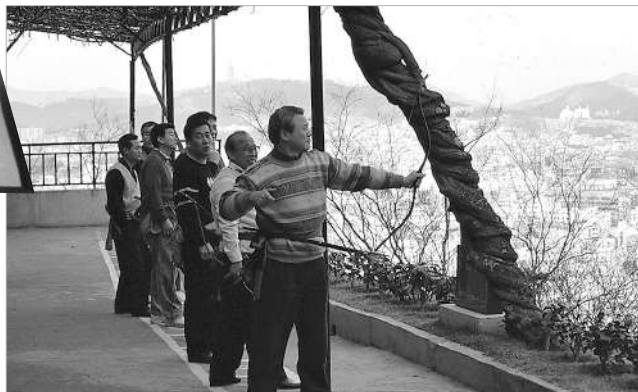
인해 정사가 붕괴되었다. 당시 제5대 사두(射頭) 김성호(金聲浩)는 일제의 탄압 가운데서도 사원(射員)들과 정사(亭舍)의 재건립에 노력하면서 궁술연마에 주력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가 1963년 4월 제11대 사두(射頭) 서부근(徐富根)을 비롯하여 총무(總務) 신화성(申華成) 등의 열성적인 노력과 사원(射員)들의 찬조로 현 정사가 건립되었다.

그 후 날로 정세(亭勢)가 번창하여 사원(射員)의 증가는 물론이고 1976년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 1천여 명이 참

일등바위 아래에 자리한 연무정과 달성사, 양태백 작



사대에 올라서는 사수는
마음을 가라 앉히고 과녁을
향해 시위를 당긴다.



가하는 대성황을 이루었고, 이 자리에서 제10대 사두(射頭) 서부근(徐富根), 제12·13·14대 사두(射頭)를 지낸 이룡우(李龍雨)의 공적비 제막을 했다. 또 전국 남녀 궁도 대회도 여러차례 개최하였으며 전국 각지의 궁도 대회에도 출전하여 단체전 개인전 우승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현재는 사원(射員)이 4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10월 1일 시민의 날에 고인이 된 두 사두(射頭)의 합동 위령제와 궁도대회가 연무정에서 열린다.

연무정의 의의

목포만호가 있었던 목포진이 설치된 이래 수군의 군사훈련 목적으로 궁술(弓術)의 연마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면, 이 지방에서의 궁도의 역사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왔다고 본다. 더구나 임진왜란 당시에 이충무공의 고향도 둔병과 당곳진(唐串鎭)이 있었으니, 오늘날 연무정의 무도정신을 이충무공의 호국사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연무정의 중앙에는 이충무공의 영정(影幀)을 봉안하고 있으며 사원(射員)들은 정(亭)에 들면 반드시 영정과 정간(正間)이라는 궁도(弓道)의 기본정신에 배례(拜禮)하고 나서 사대(射台)에 선다. 또한 목포를 상징하는 삼학도 전설에 활과 관련된 내용이 구전되어 오고 있어 유달산에 활터가 남아 있음은 더욱 큰 의의를 간직하게 한다.

5 어민동산

유달산 일주도로를 서편으로 돌면 다도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유달산 뒤편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목포시가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사업비 878백만원을 투자해 총면적 4,825평 규모로 조성하였다.

이곳은 바다와 더불어 살다간 해양도시 목포 어민들의 망흔을 위로하고, 해양을 개척해 나가는 어업인의 기상을 기리는 동시에 어민들의 사명감 고취와 시민들에게는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해양수산업을 상징하는 어민동상과 동산조성을 기념하는 김지하 시인의 시(詩) ‘바다’를 새긴 시비가 대표적인 조형물이다. 유달산의 후사면 개발의 시작점으로 유달산과 대반동 바닷가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음수대, 주차장,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이 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해마다 4·8만세 운동 기념 전국 청소년백일장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시민의 행사장과 야외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어민의 기상을 표현한 생명력 넘치는 어민동상이 세워져 있다.





자생식물원 야외

6

특정자생식물원

희귀 멸종 우려의 자생식물(환경부, 산림청 지정) 증식, 보급으로 우리꽃 문화 전승과 관람객의 환경보존의식 고양을 위한 자연생태계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위하여 지난 2000년 11월 10일 유달산 기슭 조각공원과 난 전시관 사이에 건립됐다. 총 사업비 12억 2천 8백여만원을 들여 조성한 특정자생 식물원은 1,560평 규모에 유리온실, 야외전시장, 양묘장, 관찰로 등을 갖췄으며 이 곳에는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희귀·보호 식물로 지정한 318종(초본류 239종, 목본류 79종)이 유리온실과 야외전시장에 전시돼 있다.

전시된 품종은 백리향, 삼백초, 섬말나리, 노루귀 등 초본류와 미선나무, 히어리, 망개나무, 만리화, 개가시나무, 소귀나무, 백서향 등 목본류가 관심을 끈다. 환경부 지정 전국체험환경학습장으로서 유달산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7

시민의 종과 시민종각(市民鐘閣)

새천년 시민의 종은 목포시가 새천년 출발기념사업으로 기획 추진하여 3년만에 완성하였으며 유달산 노적봉

옆 구 오포대 자리에 설치 됐다.

지난 '99년 행정인센티브 평가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수상한 상사업비 6억원을 들여 제작된 이 종은 21세기를 상징하는 21t의 무게에 3.9m의 높이로 당시 국내에서는 규모면에서 두 번째이다. 또한 14.4평 규모에 철근콘크리트 겹처마 사모지붕으로 지어진 종각은 주위의 환경과 더불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특히, 종각처마에는 이 지역 출신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친필인 『市民鐘閣』현판이 걸려 있다. 해마다 제야(除夜), 시민의 날, 3·1절, 광복절을 기념하여 타종식을 갖고 있다.



시민종각



시민종각 현판. 김대중 전대통령 친필

8 목포를빛낸 명인 · 명물의거리

목포시는 유달산 목포문화원에서 유달산 노적봉 입구를 오르는 100m에 1억5천여만원을 들여 목포팔경을 비롯 목포의 노래, 목포의 명물, 목포의 문화유산 등 모두 12점의 비경을 담은 명물거리를 만들었다. 특수공법으로 제작된 자기질 타일로 만들어진 이 비경은 서울 덕수궁을 연상케하는 돌담길 아래에 설치돼 볼거리를 연출하고 있다.

계단을 오르면 맨 먼저 금강추월(영산강의 가을달빛)에 이어 아산춘우(아산에 내리는 봄비), 입암반조(갯바위의 저녁노을), 고도설송(고하도의 눈덮힌 소나무), 용당귀범(용머리를 돌아오는 뚝단배), 달사모종(달성사의 저녁 종소리), 유산기암(유달산의 기묘한 바위), 학도청람(맑은 날 삼학도에 부는 시원한 바람) 등 비경을 만날 수 있다. 목포팔경에 이어 목포의 눈물과 명물이 소개돼 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 시는 앞으로 이곳에 목포를 빛낸 인물 동상도 설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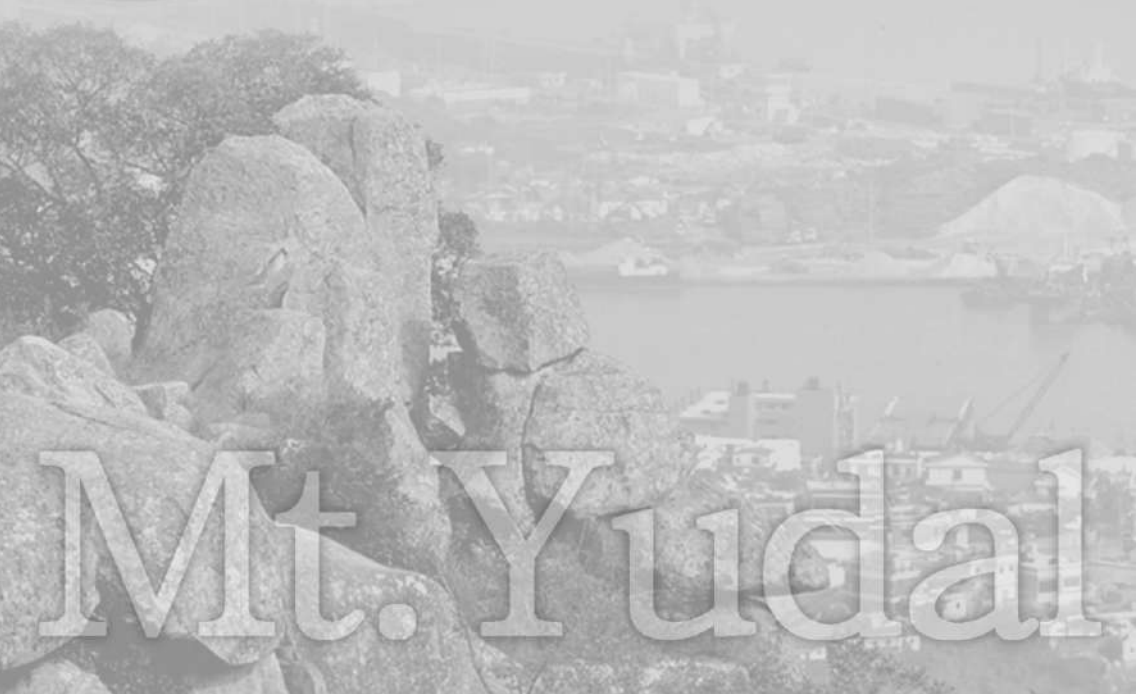


명인 · 명물의거리



유달산 꽃 축제 소개

IV



Mt. Yudal

유달산 꽃 축제



남쪽으로부터 복상하는 봄 소식과 유달산의 꽃이 만개한 시기에 맞추어 열리는 유달산 꽃 축제는 96년부터 시민회합과 결속의 계기를 마련하고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노적봉, 달성공원, 조각공원, 어민동산 등 유달산 일원에서 펼쳐지는 축제는 강강술래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기념행사, 문예, 이벤트 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새봄에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화사한 꽃과 신명난 한판 잔치마당을 함께 만끽할 수 있다.

■시 기 : 매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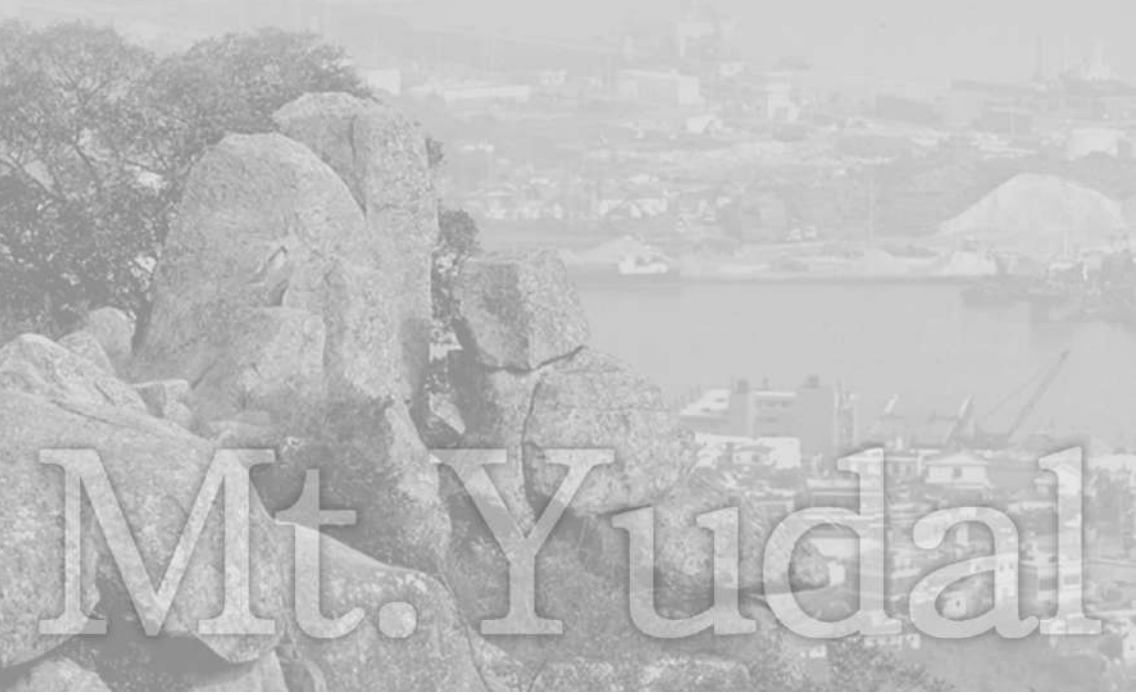
■장 소 : 유달산 일대

■주요행사 : 유달산 꽃길걷기, 합창무대, 야외무용공연, 봄나물캐기대회
향토작가 야외전시회, 거리의 화가, 민속놀이 마당, 옥공예
특별전, 유달산 꽃소식 전하기, 목포역사의 거리 답사 기행



유달산의 표비탐과 설명문

V



Mt. Yudal



유달산의 표비탑과 설명문

■ 유달산 등구비(儒達山 登口碑)



언제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목포극장 쪽에서 유달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높이 128cm, 너비 40cm, 폭 26cm 크기의 비(碑)가 있다. 비의 전면(前面)에 “儒達山 登口”, 후면(後面)에 “頂上 海拔 二二八米三. 從一三八四米五”라 각(刻)해져 있다.

■ 유달산표비(儒達山標碑)

1973년 7월 1일 대학루(待鶴樓)앞에 높이 193cm, 너비 38cm 크기로 유달산명표(儒達山名標)를 세웠다.

전면(前面)에 “儒達山”, 뒷면에 “海拔 二二八米”라 새겨져 있는데 글씨는 소암 현중화(素菴 玄中和)선생이 썼다.



■ 유달산 순환로비



유달산 정문에서 우측의 일주도로 쪽으로 들어가는 길의 화단에 세워져 있다. 1982년 설립, 글씨는 서희환이 썼다.



■ 모충(慕忠)비

이 충무공 동상으로 가는 입구 좌측에 서 있다.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글씨는 월파 김은섭 선생이 썼다.

■ 충무공 이순신 동상

충무공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1974년 5월 20일 총 209명(고문6·상임위원17·위원183·기타3)으로 된 이충무공동상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1974년 8월 15일 죽교동(유달산내)에 세워졌다. 총 사업비는 시민성금이 1천만원, 도비 2백만원, 시비 8백만원인 총 2천만원이 소요되었다. 비명은 박정희 대통령이 휘호, 탁련하(卓鍊河) 선생의 조각을, 이은상·최순우·최영희 선생의 사료에 의한 고증·심의를 거쳐, 1974년 7월 12일 윤주영(문화공보부장관)의 심의 필증을 얻어 문공부 등록 제1호가 되었다. 다음은 이은상이 찬하고 서희환이 쓴 비문을 열거한 것이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신 애국정신의 상징이시다. 장군이 일찍 임진왜란때 1597년 5월 명량승첩 뒤 10월 29일 우수영으로부터 이곳 고하도에 이르러 이듬해 1598년 12월 17일 고금도로 옮기기 까지 무릇 107일 동안 여기서 머무르면서 해를 가로 막아 전선만들고 군량 모으고 군사를 훈련하면서 진을 쳤었다. 그러므로 목포 앞바다에는 장군의 숨결이 베어들었고 지금도 다도해 하늘을 바라보면 장군의 모습이 나타난다. 저 산,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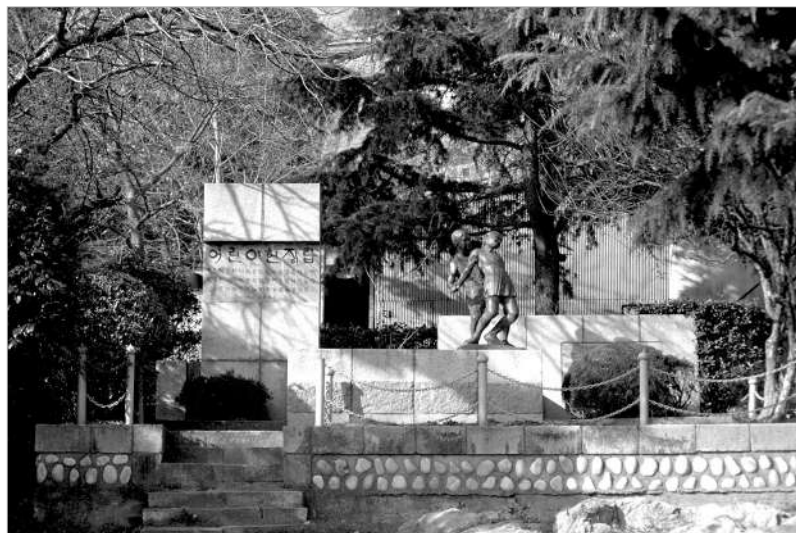
바다에 서려있는 님의 맹세 조국의 제단에 자기 한몸 바치셨네, 피물은 발자국 따라 나도 그 길 가오리다.”

동상의 뒷면에는 “충무공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목포시민의 정성을 모아 호국하신 이순신장군의 동상을 세웁니다. 여기에는 충무공의 피와 땀이 어린 고하도의 흙을 간직하여 이 동상으로 하여금 충무공 얼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어린이 현장탑

목포시 청소년 선도보호위원회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1965년 5월 5일 제2휴게소 옆에 세웠다.

탑의 높이는 230cm · 너비 120cm로 중앙에는 남녀 어린이가 손을 잡고 있는 동상이 있고, 좌측에 어린이 현장탑, 우측에 어린이 현장문이 있다. 권일송이 글을 짓고 서희환(현장탑), 박정식(현장문)이 글을 썼으며 이돈채 · 전덕성 · 정일섭 등 다수가 참여하여 완성하였다. 어린이 현장탑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어진 사랑 바다의 유달의 이름으로 어린 새싹 위한 부
신 영광의 깃발 여기 꽃나니 노상타는 멧부리 향한 노래
와 기쁨에 살거라.”

▣ ‘목포의 눈물’ 노래비



대학루(待鶴樓)와 달선각(達仙閣) 사이에 있는 비(碑)로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씨와 가사를 쓰신 문일석씨를
기념하기 위해 1969년 6월 11일 박오주(목포악기점·66
세)씨의 출연으로 예총 목포지부가 주관하여 세웠다.

그 후 1984년 작곡가 손목인씨의 이름이 누락되었다
하여 1차 수정하여, 현재에 이른다. 비의 높이는 211cm,
너비 247cm로 차채석이 글을 짓고 박정식이 썼다.

비석 내에 음향시설을 추가하여 이난영이 생전에 불렀
던 가요가 흘러 나오고 있다.

목포의 눈물

1절: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삼학도 파도 깊이 숨어드는데

부두에 새악시 아롱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인가 목포의 서름

2절: 삼백년 원한품은 노적봉 밑에 임자취 완연하다 애닦은 정조
 유달산 바람은 영산강을 아느니 임그려 우는 마음 목포의 눈물
 3절: 깊은밤 조각달은 흘러가는데 어찌다 옛 상처가 새로워진다.
 못오는 임이면 마음도 보낼 것을 향구의 맺은 절개 목포의 사랑

■ 현충탑(顯忠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조국 수호신
 들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시민의 정성으로 1967년 4월
 20일 달선각(達仙閣)과 유선각(儒仙閣)과의 중간에 세워
 졌다.

권일송이 글을 짓고 서희환이 썼으며 송성룡(현충탑건
 립추진위원장)·김수남(발기인대표)이 추진하였다.

다음은 비문내용이다.

충절은 실실이 피어린 땅에 스미고
 분노와 함성은
 차라리 입다문 하늘에 꽃히어
 조약돌 부푼 열정으로
 대의의 죽음에 치달아
 지금 저렇듯
 소리없는 한포기 꽃의 이름을
 더불어 수난의 바다와 대지를
 우뚝히 서는
 영겁을메이리쳐 부싯불로 타고
 그 무덤이 도로혀 내 가슴에
 빛나는 유달의 아들들 그 혼령이 여기 눕다.





■ 4월혁명학생기념비

현충탑 위에 있는 사월혁명학생기념비는 민족의 자유와 조국의 발전을 위해 몸바친 젊은이들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하여 4·19의거 이듬해인 1961년 4월 19일에 의거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비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 그토록 피벌은 울분의 바다를 향하여
우리들 가슴깊이 살아흐르는 외로운 목메임을 들으라
아아, 4·19
파도 가까운 이 광장에
병든 역사는 문혀 타는 강에 넘치는
부활의 어진 혁명과 너를 위한 더운
죽음 그 큰 얼의 깃발은 꽃히다.
단기 4294년 4월 19일
목포출신 사망자 채광석 · 김부연 부상자 고종채”

■ 유선각표비(儒仙閣標碑)

유선각(儒仙閣) 중수를 기념하기 위하여 1973년 8월 1일 유선각 앞에 세워진 비로, 높이는 100cm · 너비 76cm이며 차재석(車載錫)이 글을 썼다. 비문(碑文)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흰 구름이 쉬어 가는 곳입니다. 세 마리의 鶴이 고이
잠든 푸른 바다의 속삭임을 새벽별과 함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車載錫”

다음은 비문 뒤의 내용이다.

“이 儒仙閣은 木浦開港 第35周年을 記念하는 행사의



하나로 시민의 뜻을 모아 1932년 10월 1일 木造로 처음 건립했었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部分補修와 全面補修를 거쳤으나 흐르는 歲月을 이기지 못하므로 마침내 金在植知事님의 積極的인 지원을 받아 옛날의 모습을 살려 철근콘크리트로 개축하고 주위를 새로 꾸며 靑湖의 情景를 길이 돋보이게 했습니다. 木浦市長 金東石”

▣ 3·1독립운동탑(三·一獨立運動塔)



3·1정신 기념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1983년 8월 15일 3·1광장(목포시사 우편, 유달산 정문에서 우측도로를 따라 걸어서 5분정도 거리에 위치)에 높이 3m 30cm, 너비 3m 크기로 세워졌다. 다음은 조효석(趙孝錫)이 짓고 김은섭(金殷燮)이 쓴 3·1독립운동탑의 비문(碑文)이다.

“自主獨立國인 大韓帝國의 主權을 武力으로 威脅 篡奪한 侵略主義 日本의 強制統治로 말미암아 暗黒과 桎梏에 呻吟하던 韓民族은 마침내 서기 1919년 3월 1일 大韓帝國이 自主獨立國임을 世界萬邦에 宣言하고 一齊히 蹶起하며 獨立萬歲를 高唱, 坊坊曲曲에 太極旗의 물결을 일으

켰으니 이 義舉를 이름하여 歷史는 ‘3·1獨立運動’이라 記錄하였다.

우리고장 木浦에서도 歷史의 召命아래 朴相烈의 主導로 인해 4월 8일 上午 10시를 기해 市民과 學生이 총궐기, 獨立宣言文과 警告文을 撤布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大韓獨立萬歲를 절규하여 日帝를 震憾시킴으로써 韓人의 獨立魂을 中外에 誇示 闡明하였다. 鬼畜과 같은 日帝憲兵과 警察은 烈士 80명을 체포·투옥하여 天人共怒할 拷問을 자행했던바 朴相述·徐岐見 兩烈士는 拷問으로 忿死하였고 40명의 烈士는 日帝法廷에서 懲役刑을 宣告받고 囹圄의 몸이 되어 주권잃은 국민의 처절한 슬픔을 反芻하였다. 酷毒한 勞役에서 풀려난 朴相烈은 中國에 亡命 上海臨時政府 獨立軍資金調達 任務를 맡아 數次 國內에 潛入 密躍中 日警에 발각되어 再次 獄苦를 치루었고 餘他 烈士들도 日帝의 間斷없는 瞰視아래 辛苦와 恨歎의 歲月을 보냈다.

여기 3·1獨立運動의 歷史的 意義를 되새기고 鄉里烈士들의 崇高한 獨立精神과 自由를 渴求·鬭爭한 自主民의 강한 意志를 顯彰하여 後孫의 儀表로 삼고자 歷史의 이름으로 이 탑을 세운다.”

■ 철거민 이주 기념탑

목포시가 유달산 환경미화 작업의 일환으로 불법가옥을 대대적으로 철거하게 되었는데, 이들 철거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하여 1979년 12월 철거 가옥의 돌들을 이용하여 달성공원과 난 공원내에 각각 높이 41m·너비 60m의 탑을 세웠다.

다음은 비문 내용이다.

“自然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故鄉을 사랑하고 儒達山을 아끼는 가락한 마음으로 情든 터전을 스스로 떠나간



법인들의 숨결과 정성이 깃든 돌들을 모아 자연을 사랑하고 가꿀 줄 아는 새로운 市民氣像과 意志를 다짐하고자 여기 이 탑을 세웁니다. 1979년 12월 木浦市長 李炳奈”

■ 유달산공원 조성기념비

유달산 난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유달산공원조성 기념비를 세웠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늘에 고개 쳐들고 노상 맛있게 키를 뽑는 멧부리 굽이치는 다도해를 발아래 다스리고 영겁의 침묵 속에 속 불로 일렁이는 날개 유달산은 남해의 수문장이요 내고장의 표상이다.

기나긴 개항의 역사를 몸에 두르고 피어린 개척사의 증언대에서 잠들지 아니한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어찌 이 고장의 자량과 숨결이 깃들지 않았으랴? 상기 삼학의 전설이 숨쉬는 예향 목포,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관광의 요충지요. 바다를 향한 전진기지로서의 유달산 공원화 추진 운동에는 온 시민이 다투어 정성을 쏟고 앞장서서 길을 열었다.

천연의 바위와 숲으로 우거진 산 아래 푸르른 목숨의



깃발을 위하여 너도 나도 예향의 얼을 불태웠으니 새로운 도시와 시민의 합창으로 길이 남으리라. 조출하나마 여기 기념비를 세워 목포인의 기개와 애향정신을 떨친 고마운 분들의 이름을 새긴다. 글 권 일 송 글씨 우하 김 정 재”

■ 기 타

이외에도 유달산에는 각종 봉사단체들이 세운 기념비들이 있다.

자연보호비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세웠으며 탑의 높이는 75.5cm · 너비 120cm · 글씨는 유천 서중건이 썼다.

로타리 창립20주년 기념비

건전한 시민상확립을 위하여 1983년 3월 15일 로타리 클럽창립20주년 기념 사업으로 건립되었다. 비의 규모는 높이 24cm 너비 124cm이며 비문은 국제로타리 표준 실천요강으로 우하 김정재가 썼다.

세계평화비

“유달산은 푸르게 가꾸자는 뜻을 기념하기 위하여 people to people 클럽(목포클럽)에서 1972년 4월 5일 대학루와 어린이 현장탑 사이에 세웠다. 뒷면에는 당시 클럽 회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규모는 높이 69cm · 너비 88cm이다.”

■ 홍법대사, 부동명왕상 안내 표지판

“홍법대사, 부동명왕상은 우리지방의 전통문화나 우리나라 불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외래문물의 표상이다.

일본승려 홍법(공해 空海 774 · 835)은 일본불교 진언종(眞言宗)의 개조(開祖)이며, 부동명왕은 대일여래의 사

자(使者)로서 밀교의 5대 명왕중 하나이다.

일본불교는 개항후 7개 종파가 목포지역에 침투하였으며, 진언종파는 1920년경 유달산에 홍법대사상과 부동명왕상을 조각하고 일본 불교를 우리 지역에 전파하고자 했다.

목포개항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문화를 바르게 인식하고 민족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이 표지판을 세운다.
1997. 9. 30 미래를 여는 공동체”

■ 오폭대(午砲臺) 설명문

“오폭은 정오폭(正午砲)의 준말로써 구한말과 일제 침략기에 포를 쏘아 정오를 알리는 신호였다. 목포에서는 1909년 4월부터 경기도 광주(廣州)에서 옮겨 온 포를 사용 중 1913년 8월에 일본 야포로 바꾸었다. 일제 말에는 두 개의 포를 모두 징발 당했으며 그 후 사이렌으로 정오를 알렸으나 시민들은 여전히 ‘오폭분다’고 하였다.

전남도는 1986년 11월 8일 이곳 유서 깊은 오폭대를 지방문화재 자료 제 138호로 지정하였고 본 애향협의회에서는 이를 기념 보존키 위해 천자총통(天字銃筒)을 西紀 1609년(造)과 후대의 차륜식포가(車輪式砲架)를 복원한다. 1988년 12월 일 목포 애향 협의회”

■ 새천년 시민의종 기념비

“개항과 더불어 우리나라 근세사의 전면으로 나서면서 좌절과 보람의 역사를 지니게 된 목포!

이제 희망과 영광의 새로운 목포가 되리라는 부푼 꿈이 영광다.

새천년 시민의 종소리에 우리의 앞날을 기약하는 마음을 가다듬게 되리라는 목포 시민의 소망으로 이 종을 만들고 종각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여 새 천년의 첫 시민의 날에 드디어 종소리가 퍼져나가다. 2000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이담”

새천년 시민의중 기념비



■ 근대기상 100주년 기념 표석

노적봉 옆 시민중각자리에는 1906년 개소된 측후소가 있었다. 천기를 보는 곳이라 하여 이곳을 일명 천기산이라고도 불렀다. 이 자리에는 근대기상 100주년 기념 표석이 세워져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첫 기상관서가 된 목포기상대는 1904년 3월 대한제국 칙령 제10호에 의하여 신안군 하의면 옥도리 103번지에 창설되어 동년 3월 25일 정규 기상관측업무를 시작하였다. 이 터는 목포기상대가 하의면 옥도리에서 1906년 4월 대의동 2번지 목포문화원 구내를 거쳐 1906년 8월 이곳으로 옮겨와 1997년 12월 연산동으로 이전하기 까지 91년 동안 기상업무를 관장하였던 자리이다.

근대기상 100주년을 기념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규 기상관측을 시작한 목포기상대를 기리고 자 이 자리에 표석을 세운다.

2004년 3월 기상청”



유달산 관광 이용 안내

1 상세 정보

- ◎ **주차장** : 2,645 평방 m (승용차 2,000대 수용)
- ◎ **입장료**
 - 어른개인(700원)/단체(600원), 학생개인(500원)/단체(400원)
 - 어린이개인(300원)/단체(200원)
- ◎ **주차요금**
 - 승용차(1,500원), 소형차(2,000원), 중형차(2,500원), 대형차(3,000), 화물4t미만(2,000원), 화물4t이상(3,000원)
- ◎ **주요시설** : 파고라, 누각, 대중음식점, 기념품점, 슈퍼마켓
- ◎ **입장시간**
 - (하절기)07:00~19:30 / (동절기)07:30~17:30 / (춘.추기)07:30~18:30
- ◎ **등산코스**
 - 1) 유달공원 입구-달성각-유선각-마당바위-일등바위(2km, 40분 소요)
 - 2) 유달공원 입구-소요정-이등바위(1km, 20분 소요)

2 교통편

- ◎ **목포공항** :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목포역 하차후 택시로 10분소요 (유달산 입구까지)
- ◎ **목포역** : 도보로 20분거리(유달산 입구까지)
- ◎ **버스편**
 - 시내버스(1,101,108,105,2번) 이용하여 목포역 하차
- ◎ **도로안내** :
 - 1)목포역 -> 오거리 -> 유달산 입구
 - 2)호남고속도로 광산IC -> 13번국도 -> 송정 -> 나주 -> 1번국도 -> 무안 -> 목포시내 -> 중앙로 -> 무안동 -> 유달산 진입로
 - 3)서해안고속도로 목포IC -> 북향삼거리 -> 유달산 진입로

유 달산아 말해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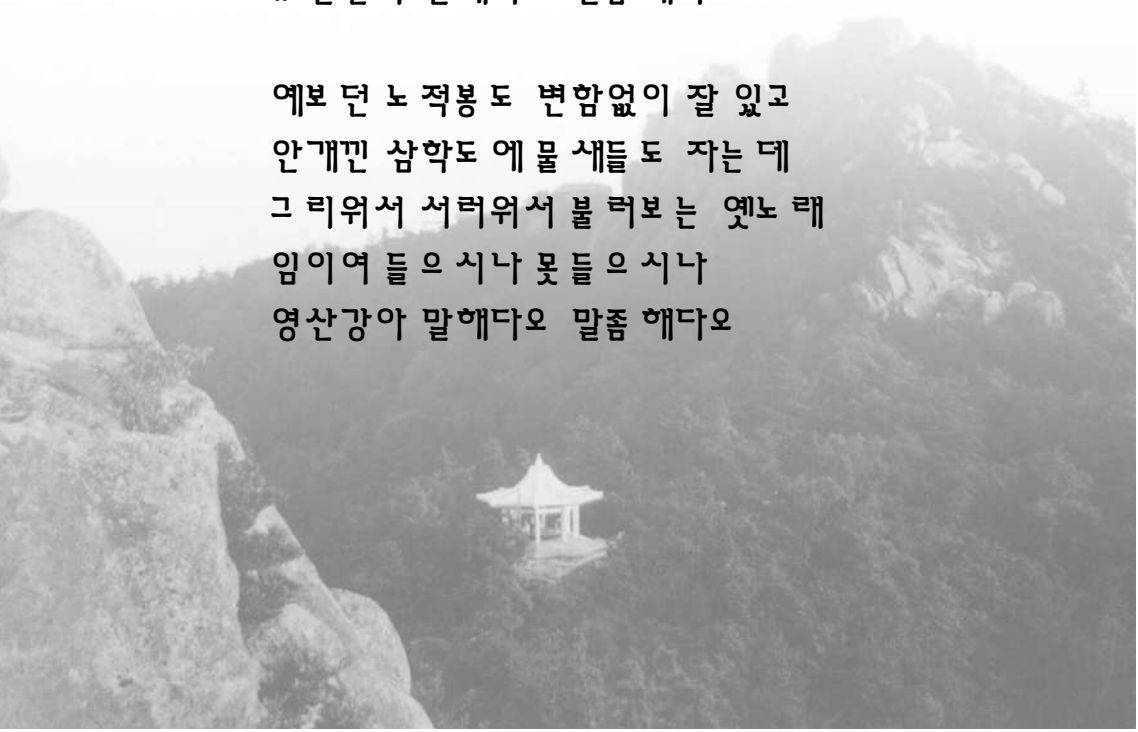
작사 : 반야월

작곡 : 고봉산

노래 : 이미자

꽃 피는 유 달산아 꽃을 따던 처녀야
달뜨는 영산강에 노 래하던 총 각아
그 리움을 못 잊어서 천리길을 왔건만
임들은 어딜 갔나 다 어딜 갔나
유 달산아 말해다오 말좀 해다오

예보 던 노 적봉도 변함없이 잘 있고
안개 낀 삼학도 예 물 새들도 자는 데
그 리워서 서러워서 볼 러보는 옛노 래
임이여 들으 시나 못 들으 시나
영산강아 말해다오 말좀 해다오



바다가 소리질러
나온 복고의 소리소리
소리의 이슬
이슬 가득한 한 아침에
그 아침에
문을 열어서
우더 그날 함께 가겠다
살아서 가겠다
죽어 뵈더라도 가겠다
아아
삶이 들끓는 바다. 바다너머
저 가없이 넓고 깊은
떠나온 생명의 고향
저 까마득한 미지의 바다

-시 '바다'에서
김지하

어민동산에 세워진
목포출신 김지하의 '바다' 시비.

